

한국어 전향적 중심의 서열 설정*

이 춘 숙 최 재 응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yichunsuk, jchoe}@korea.ac.kr

Ranking Forward-Looking Centers in Korean

Chunsuk Yi Jae-Woong Choe
Dept. of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중심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전향적 중심의 서열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전향적 중심 서열에 포함시킨 요인들 즉, '주어, 주제, 공감도'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선호도, 또는 서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요인들 사이의 서열을 비교하는 데에 적합한 담화를 고안한 후 이를 설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심화 이론에서 제안하는 '추이 상태'와 함께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제 > 주어 > 목적어'의 전향적 중심 서열을 얻었다. 또한, 화·청자를 전향적 중심의 서열 설정에 포함시키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화·청자를 포함시키는 대신 담화 분절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서 론

일반적으로 담화는 여러 개의 발화들로 구성된다. 중심화 이론(centering theory)¹⁾은 이 발화들이 각각 하나의 중심(center)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중심이 가리키는 담화 지시체(discourse entities)²⁾가 일치할수록 그 담화는 일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관된 담화내에서 한 발화 U_i 의 중심($Cb(U_i)$)은 이전 발화인 U_{i-1} 의 담화 지시체들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담화상 가장 두드러진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집합이 '전향적 중심(forward-looking centers)의 집합'으로, 이 집합은 뒤따르는 발화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 집합의 원소들은 담화상에서 두드러진 정도(salience)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열이 정해진다고 가정되는 바, 이중 가장 순위가 높은 원소를 '선호 중심(preferred center; $Cp(U_i)$)'라 한다. 선행 연구³⁾에 의하면,

그러한 서열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서열이 개별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한다.

담화의 전개에 따른 중심의 변화는 추이 상태(Transition State)라 하고, 논리적으로 네 가지가 가능하며, 지속, 유지, 약전환, 급전환 등이 있다[표 1]. 그런데, 이들 추이 상태간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예를 들면, '지속'은 '유지'보다 선호되고, '유지'는 '약전환'보다 선호되며, '약전환'은 '급전환'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표 1] 중심화 이론의 추이 상태

	$Cb(U_i) = Cb(U_{i-1})$ or $Cb(U_{i-1}) = [?]$	$Cb(U_i) \neq Cb(U_{i-1})$
$Cb(U_i) = Cp(U_i)$	지속 (CONTINUE)	약전환 (SMOOTH-SHIFT)
$Cb(U_i) \neq Cp(U_i)$	유지 (RETAIN)	급전환 (ROUGH-SHIFT)

* 본 연구는 BK21 핵심사업 [언어구조의 전산적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책임자 강명윤]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1) 대표적으로 [14]가 있으며, [20]은 일본어에 대한 연구다.
2) 중심화 이론에서 '담화 지시체(discourse entity)'는 일반적으로 명사구를 가리킨다.

3) 일본어의 전향적 중심 서열에 대한 연구는 [16], [20]이 있으며, 독일어에 대한 연구로는 [18], 터키어에 대한 연구는 [19], 이탈리아어에 대한 연구는 [15]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중심화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시킨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주어, 주제, 공감도, 화자와 청자라는 요인들 각각의 부분적인 서열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2절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주어와 주제', '주제와 공감도', '주어와 공감도' 쌍의 부분적 서열을 설정하기 위해 설문 결과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각 요인별로 설문 결과를 분석한다. 3.1에서는 주어와 목적어의 부분적 서열을 검토하고, 3.2에서는 주제와 주어를 비교한다. [3],[8]과 본고의 설문 결과의 차이점은 '주어와 공감도', '주제와 공감도'의 부분적 서열이다. [3]은 공감도가 주어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근거는 추이 상태의 선호 계층이다. 그러나, 중심화 이론에서 제안하는 추이 상태의 선호 계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공감도와 주어, 공감도와 주제에 대해 3.3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1]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주어보다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3.4절은 화자와 청자를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 포함시켜야 할지 살펴본다. 그리고, [12]에서 화자와 청자가 영형 대명사로 실현되었을 때 중심화 이론의 적용 범위에서 이들 영형 대명사는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화자와 청자가 생략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다.

2. 설문을 통한 통계적 분석 결과

전향적 중심 집합내 요인들간의 부분적 서열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간 비교가 가능한 담화를 고안하였다. 이를 설문을 통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1 설문 담화

설문을 위해 고안된 각 담화는 대개 네 개의 발화로 구성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발화는 동일한 중심을 갖는 발화로 중심화 이론에서 제안하는 '지속'이 된다. 세 번째 발화에서는 비교할 두 요소가 동시에 실현된다. 이때 네 번째 발화의 중심이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석되는지 선호성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세 번째 발화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실현되었다면, 네 번째 발화에서 둘 중 어느 것이 중심으로 실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네 번째 발화는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s)이나,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오로지 하나의 담화 지시체로만 해석되지 않는 중의적인 발화다. 즉, 비교하는 두 개의 담화 지시체 모두 네 번째 발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어와 주제를 비교하는 설문 담화는 5개 항목이며, 주어와 공감도는 1개 항목, 주제와 공감도는 4개 항목, 주어와 목적어는 2개 항목이다.

[표 2] 설문 담화의 예

- Q: '커피를 마시자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유진이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2. 그녀가 분수대 앞에 섰다.
 3. 채린이는 그 곳에서 만났다.
 4.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표 2]는 설문 담화의 한 예다. 질문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한 사람'을 '채린'으로 선택하면, 네 번째 발화의 중심을 세 번째 발화의 주제로 선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커피를 마시자고 한 사람'을 '유진'으로 선택하면, 네 번째 발화의 중심을 세 번째 발화의 주어로 선택한 것이다.

2.2 설문 방법

설문 담화 중 네 번째 (일부는 세 번째) 발화의 중심 해석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실시 일자는 2002년 4월 9일과 11일 양일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면서,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는 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별 분포는 사회학과 12명, 경영학과 22명, 기타 15명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여자가 25명, 남자가 24명이었다. 설문의 평균 소요시간은 12분이었다.

2.3 설문 결과

[표 3]은 본고에서 제시한 예문의 설문 결과를 보여 준다. 대체로 비교 요인들 사이에 선호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선호도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의 응답은 N으로 표시된 것으로, 이는 두 요인 중에 선호도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즉 둘 다 비슷하게 가능하다는 응답자들일 경우도 있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표 3] 49명에 대한 설문 결과

(단위 %)

요인	주어	주제	주어	목적어	주제	공감도	주어	공감도
비율	27.57	44.86	32.99	41.24	73.47	12.76	69.39	10.20
N	27.57		25.77		13.78		20.41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세 번째 발화에서 주어와 주제가 동시에 분리되어 실현된 예문을 제시했을 때 주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45%이고, 주어를 선택한 비율이 28%이다. '모르겠다'라는 대답은 28%로 주어를 선택한 비율과 같다. 또한, 주제와 공감도가 실현된 발화에서 공감도를 선택한 비율은 13%, 주제를 선택한 비율은 73%이다. 주어와 공감도 논항을 비교해본 결과, 주어를 선택한 비율은 69%, 공감도를 선택한 비율은 10%이다. 주어와 목적어의 비교에서 주어를 선택한 비율은 33%, 목적어를 선택한 비율은 41%로, 이는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설정한 '주어 > 목적어'의 서열과 상치되는 의외의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담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는 상황보다는 매점에 있던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 4]와 같은 추가적으로 설문을 하였다. 이 설문 담화에서는 '광수'와 '봉주'가 영화를 보러 가고 제안할 가능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설문의 결과, 주어와 목적어를 비교한 담화(Q1)에서 3명중 3명 모두 주어를 선택하였으며, 주제와 목적어

를 비교한 담화(Q2)에서 3명중 2명이 주제 '봉주'를 선택 하였으며, 1명은 주어 '광수'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표 3]의 설문 결과 중 예측에서 벗어난 '목적어 > 주어'의 서열은 담화 상황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 추가 설문 담화의 예

- Q1: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광수가 오후에 학교에 갔다.
 2. 목이 말라 매점에 갔다.
 3. 봉주를 거기서 만났다.
 4.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 Q2: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광수가 오후에 학교에 갔다.
 2. 목이 말라 매점에 갔다.
 3. 봉주는 거기서 만났다.
 4.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공감도의 경우는 공감도 논항이 간접 목적어로 실현된 경우만 제한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주어나 주제보다 낮은 위치에 놓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요인별 논의

3.1 주어

중심화 이론의 한국어 선행연구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한국어에서 주어가 목적어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의 주어에 관한 선행연구들([1], [5], [6], [10])을 토대로 (1)과 같이 주어의 특성과 개념을 정리하고, 예문을 통해 목적어와 주어의 전향적 중심의 서열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어: 서술 주 어떤 행위, 상태, 존재, 환언의 주체이다. 일반적으로 주격 표지 '이/가'가 붙은 명사구는 해당 명사가 주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며, '이/가'이외의 조사가 붙은 것도 주어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주어와 목적어의 상대적인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는 (2c)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가 동시에 실현된 발화가 필요하다.

(2) a. 상혁이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Cb: [?], Cf: [상혁, 공부, 도서관], TS: no Cb

b. 그가 커피를 마시러 매점에 갔다.

Cb: 상혁, Cf: [상혁, 매점, 커피], TS: 지속

c. ∅ 준상이를 거기서 만났다.

Cb: 상혁, Cf1: [상혁, 준상, 매점], TS: 지속

Cb: 상혁, Cf2: [준상, 상혁, 매점], TS: 유지

d. 갑자기 ∅ ∅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Cb: 상혁, Cf: [상혁, 준상, 영화], TS: 지속

Cb: 준상, Cf: [준상, 상혁, 영화], TS: 약전환

위의 예문 (2a)와 (2b)에서 나타난 '이/가' 주격 표지는 주어를 나타내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d)에서 두 개 영형 대명사⁵⁾ 중 이 발화의 중심으로 '상혁'이 될 수도 있고, '준상'이 될 수도 있는 중의적인 발화이다. (2d)에서의 중심을 '상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준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자연스럽다. (2c)에서 주어로 실현된 '상혁'이 (2d)에서 중심으로 실현된다면 중심화 이론에서 제한한 추이 상태가 '지속'이 되고, (2c)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준상'이 (2d)에서 중심으로 실현된다면 추이 상태는 '약전환'이 된다. (2c)의 주어가 (2d)의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선호되며, 추이 상태의 선호 즉, '지속'이 '약전환'보다 선호된다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3.2 주제

우선 한국어에서 주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2], [6], [10])을 기반으로 (3)과 같이 주제의 정의와 특성을 정리하였다.

(3)주제: 문장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를 말해주는 성분이다. 일반적으로 '은/는'의 표지를 갖는 명사구로, 문두에 나타나는 것이 무표적인 위치이다⁶⁾.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서 어떻게 서열화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주제와 주어가 분리되어 실현된 예를 살펴보았다. 주제와 주어의 부분적 서열을 설정할 경우, 주제가 주어가 아닌 다른 문법 기능 즉, 직접 목적어로 실현된 하나의 예를 고려할 수 있다. 예문 (4c)는 주어와 주제가 분리되어 실현된 예로, 직접 목적어로 실현된 주제와 주어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4) a. 상혁이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Cb: [?], Cf: [상혁, 공부, 도서관], TS: no Cb

b. 그가 커피를 마시러 매점에 갔다.

Cb: 상혁, Cf: [상혁, 매점, 커피], TS: 지속

c. ∅ 준상이는 거기서 만났다.

Cb: 상혁, Cf1: [상혁, 준상, 매점], TS: 지속

Cb: 상혁, Cf2: [준상, 상혁, 매점], TS: 유지

d. 갑자기 ∅ ∅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Cb: 상혁, Cf: [상혁, 준상, 영화], TS: 지속

Cb: 준상, Cf: [준상, 상혁, 영화], TS: 약전환

4) 본고에서는 직접 목적어(direct object)와 주어의 부분적 서열을 설정한다. 3.3절에서 '오다'의 공감도 논항이 간접 목적어로 실현되므로, 이 때 주어와 간접 목적어의 부분적 서열을 설정하기로 한다.

5) 영형 대명사를 식별하기 위한 동사의 하위 범주화 틀은 [7]을 기준으로 한다.

6) 본고에서는 [2]의 대조적 연결부는 논외로 하며, '대조적'의 미가 없는 문두의 주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예문 (2)는 (4)의 예문과 그 구조가 같으나, 한 가지 차이점은 (4c)에서는 '준상'이 주제 표지를 가지고 있으며, (2c)에서는 목적격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⁷⁾. (4c)에서 주제 표지를 가진 목적어 '준상'이 (4d)에서 중심으로 해석되는 선호도가 주어 '상혁'보다 높다. 이는 (4c)에서 '준상'이 주제 표지로 인해 그 지위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4c)에서 전향적 중심의 서열은 '준상, 상혁, 매점'이 되며, 이때의 추이 상태는 '유지'가 된다. (4d)에서는 '상혁'이 중심이 되고, 추이 상태는 '지속'이 된다.

- (5) a. 철진이가 상진이를 사람들 앞에서 때렸다.
Cb: [?], Cf1: [철진, 상진], TS: no Cb
Cb: [?], Cf2: [상진, 철진], TS: no Cb
b. ∅ ∅ 하루 종일 무시했다.
Cb: [철진], Cf1: [철진, 상진], TS: 지속
Cb: [상진], Cf2: [상진, 철진], TS: 약전환
Cb: [철진], Cf3: [철진, 상진], TS: 약전환
Cb: [상진], Cf4: [상진, 철진], TS: 지속

(5a)의 전향적 중심 서열의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어, 목적어>의 순서고, 다른 하나는 <목적어, 주어>의 순서이다. (5a)의 두 가지 가능성에 따라, (5b)의 중심이 '철진'일 경우와, '상진'일 경우로 나뉜다. 이때, (5b)의 중심이 '철진'일 경우 전향적 중심 서열과 '상진'일 경우 전향적 중심 서열이 다르다. (5b)에서 영형 주어 '철진'과 '상진' 모두 가능한 해석이 된다. (5a)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상진'이 (5b)의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향과 (5a)의 주어로 실현된 '철진'이 (5b)의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비슷하다. 즉, (5b)의 중심은 '철진', '상진'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주어나 목적어로 실현된 담화 지시체가 후행하는 발화의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6) a. 철진이는 상진이를 사람들 앞에서 때렸다.
Cb: [?], Cf1: [철진, 상진], TS: no Cb
Cb: [?], Cf2: [상진, 철진], TS: no Cb
b. ∅ ∅ 하루 종일 무시했다.
Cb: [철진], Cf1: [철진, 상진], TS: 지속
Cb: [상진], Cf2: [상진, 철진], TS: 약전환
Cb: [철진], Cf3: [철진, 상진], TS: 약전환
Cb: [상진], Cf4: [상진, 철진], TS: 지속

(5)와 (6)을 비교해 보면, 담화의 맨 처음 발화에서 주격 표지가 있는 주어인지, 주제 표지가 있는 주어인지 차이가 있다. (6a)에서 주제 표지를 가진 주어 (6b)에서 중심으로 실현되는 것이 주격 표지를 가진 그것보다 더 선

호된다. 이 때, (6a)의 주제 표지가 붙은 '철진'은 주어이며, (6b)의 중심을 '철진'으로 해석하는 선호도가 (5b)에서보다 높다. 이 같은 결과로 주제 표지가 붙은 주어의 주격 표지가 붙은 주어보다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담화의 맨 처음 발화에서 주격 표지를 가진 주어의 목적어보다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서 반드시 우선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4)와 (6)의 예를 통해 주제가 다른 문법 관계보다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제 표지가 붙은 주어의 주격 표지가 붙은 주어보다 영향력이 높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한국어의 전향적 중심의 서열을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담화의 맨 처음 발화에서 <주어, 목적어>의 서열은 주격 표지를 가진 주어와 목적격 표지를 가진 목적어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7) 주제 > 주어 > 목적어

3.3 공감도

공감도([9], [16], [17])는 한국어에서 '오다', '가다', '주다', '받다'와 같은 동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상혁이가 준상이한테 왔다.

예문 (8)은 '오다'라는 동사를 포함한 발화로, 화자의 시점이 목적 지점 또는 목표(goal)인 '준상'에 더 가깝다. 이는 '오다'가 목표('한테, -에게' 등의 표지)를 무표적 공감도 논항(unmarked empathy locus)으로 갖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가다'는 '오다'와는 반대로 주어의 무표적 공감도 논항으로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도 논항이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오다'라는 동사의 공감도 논항 즉, 목표가 주어보다 우선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공감도 논항과 주제와의 부분적 서열을 알기 위해서는 공감도 논항과 주제 표지가 붙은 요소가 동시에 실현된 발화(U_i)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발화(U_{i+1})에서 영형 대명사로 실현된 중심이 둘 중 어떤 요소로 해석되는지 그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9) a. 상혁이가 매점에서 커피를 마셨다.
Cb: [?], Cf: [상혁, 커피, 매점], TS: no Cb
b. ∅ ∅ 준상이한테 왔다.
Cb: 상혁, Cf1: [상혁, 준상], TS: 지속
Cb: 상혁, Cf2: [준상, 상혁], TS: 유지
c. ∅ 많이 변한 모습이었다.
Cb: 상혁, Cf: [상혁], TS: 지속
Cb: 준상, Cf: [준상], TS: 약전환

(9b)에서 '준상'은 '오다'의 무표적 공감도 논항이다. (9c)에서 영형 대명사이자 중심이 될 수 있는 담화 지시체는

7) [20]에서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면서도 최소 대립(minimal pair)을 갖는 예문을 통해 부분적 서열을 확인하는 방법을 시도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요인들의 부분적 서열을 확인하고자 한다.

‘준상’, ‘상혁’ 둘 다 가능하다. 이때, (9c)에서 ‘준상’ 즉 공감도 논항이 중심으로 실현된다면, (9b)에서 주어보다 공감도가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서 더 높은 위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9c)에서 ‘상혁’이 주어로 해석되는 선호도가 높으며 ‘상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공감도는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안한다. (10)의 예문은 주제와 공감도 논항의 부분적 서열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 (10) a. 상혁이는 매점에서 커피를 마셨다.
Cb: [?], Cf: [상혁, 준상], TS: no Cb
b. ∅ 준상이한테 왔다.
Cb: 상혁, Cf1: [상혁, 준상], TS: 지속
Cb: 상혁, Cf2: [준상, 상혁], TS: 유지
c. ∅ 많이 변한 모습이었다.
Cb: 상혁, Cf: [상혁], TS: 지속
Cb: 준상, Cf: [준상], TS: 약전환

(9)와 (10)의 차이는 (9a)에서는 주어 표지가 붙은 주어가 나타난 것이고, (10a)에서는 주제 표지가 붙은 주어가 실현된 것이다. 발화 U_i에서 주제 표지가 있는 요소가 그 다음 발화 U_{i+1}에서 생략되었다면, 발화 U_{i+1}은 주제가 생략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10b)는 주제 표지가 붙은 주어와 ‘오다’라는 동사의 무표적 공감도 논항(목표)이 동시에 실현된 발화이다. 주제보다 공감도가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 영향을 미친다면, (9c)에서 영형 주어는 ‘준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중심이 ‘준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10c)에서 영형 주어는 ‘준상’이 아닌 ‘상혁’으로 해석하려는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10b)에서 주제 ‘상혁’이 공감도 논항인 ‘준상’보다 높은 서열인 ‘Cf1’이 선택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공감도는 일본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3]과 [8]에서는 주어 상태의 선호 계층만으로 공감도를 한국어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 포함시켰으나, 본 논문은 이러한 선호 계층이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중심 해석 선호도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공감도를 한국어 전향적 서열 설정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공감도 논항이 주어나 직접 목적어로 실현된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3.4 화자와 청자

[13]에 따르면, 시간 또는 장소가 다를 경우, 대화 참여자들의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등에는 담화 분절이 일어난다고 한다. [11]에서는 한국어에서 대화 형식의 담화 분석을 고려하면서, (11)과 같은 담화 예를 들고 있다.⁸⁾

- 8) (11)의 담화는 [11]에서 인용된 부분이며, 연극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대본 중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는 영형 대명사로 실현된 주어를 표시한다.

- (11) a. (유니스:) ∅, 몇 번지를 찾아?
b. (블랑쉬:) ∅, 632번지예요.
c. (유니스:) ∅, 더 갈 필요두 없어.
d. (블랑쉬:) (알아듣지 못하고) 난 동생 집을 찾고 있어요. 스텔라 뒤 브와. -코왈스키 부인말예요.
e. (유니스:) ∅, 바루 찾아왔어. - 근데 ∅, 막 나갔는데.
f. (블랑쉬:) 여기가 - 설마 여기가 - 그 애 집이에요?
g. (유니스:) 그 여관 아래 살구, 난 위에 살지.
h. (블랑쉬:) 오. 그 애가 - 나갔다고요?
i. (유니스:) ∅, 길모퉁이에 불링장 봤지?
j. (블랑쉬:) 글썬, ∅, 기억이 잘 안 나요.

먼저, (11h)와 (11i)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11h)의 주어인 ‘그 애’가 (11i)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1i)의 중심은 (11h)의 주어 ‘그 애’가 아니라, 청자인 ‘블랑쉬’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11]에서는 화자와 청자를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서 주어보다 높은 위치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11)의 담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 번째, (11)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1i)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스텔라 뒤 브와가 나갔다고요?’라고 묻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스텔라 뒤 브와는 길모퉁이에 있는 불링장에 있다’라고 답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 때는 (11h)와 (11i)가 하나의 담화 분절체에 속한다. 그런데, (11i)에서 영형 대명사 ‘너’는 청자를 가리키고, (11h)에서 ‘그 애’가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11i)에서 청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화자와 청자가 전향적 중심 서열에서 주어보다 높은 위치로 설정한 것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두 번째는 (11h)와 (11i) 사이에 담화 분절의 경계가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는 (11h)의 답변으로 (11i)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즉, ‘스텔라 뒤 브와가 나갔다고요?’라고 물었을 때, ‘길모퉁이에 불링장 봤지? 불링장 옆에 작은 식당이 있는데, 그 곳에서 그녀가 일을 하고 있어’라고 답하는 경우이다. (11a)부터 (11h)까지 “스텔라 뒤 브와가 그곳에 살며, 그녀는 지금 외출중이다”라는 이야기에서 “길모퉁이의 불링장”으로 화제가 전환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화제 전환으로 인해 첫 번째 담화 (11a~h)와 두 번째 담화(11i~j)간에 담화 분절의 경계가 있다면, 전향적 중심의 서열 설정에 화자와 청자를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때는 문법 관계 계층을 통한 서열만으로 중심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와 같은 예는 담화 분절 경계의 존재가 확실하다.

- (12) a. 철수가 미국에서 돌아왔어.
Cb: [?], Cf: [철수, 미국], TS: no Cb
b. 어제 ∅ 학교에 갔었는데.
Cb: 철수, Cf: [철수, 학교, 어제], TS: 지속
Cb: 나, Cf: [나, 학교, 어제], TS: 급전환
Cb: [?], Cf: [나, 학교, 어제], TS: no Cb

- c. 누가 뒤에서 ∅ 부르는 거야.
Cb: 나, Cf: [나, 누가, 뒤], TS: 지속
- d. 그래서, ∅ 뒤를 쳐다보니까 철수인 거 있지?
Cb: 나, Cf: [나, 철수, 뒤], TS: 지속

(12b)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12a)와 동일한 담화 분절체에 (12b)가 속한 경우, 또 하나는 (12a)와는 다른 담화 분절체에 속하는 경우다. (12a)와 동일한 담화 분절체라는 가정 하에 (12b)의 중심이 ‘철수’이거나, ‘나’ 즉, 화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중심이 ‘철수’일 가능성은 문맥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발화다. 중심이 ‘나’일 경우는 추이 상대가 급전환이 되며, 매우 어색한 담화가 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은 담화 분절체의 맨 처음 발화로 중심이 없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12a)와 (12b)의 시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중심화 이론에서 전제로 하는 동일한 담화 분절체내의 발화들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전향적 중심의 서열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담화 (12)는 화자와 청자의 개념을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됨을 시사한다. (12c, d)에 기술된 내용은 (12b)가 (12a)와 동일한 담화 분절체가 아닌 경우를 중심화 이론의 적용을 통해 도식화한 것이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화자와 청자를 한국어 전향적 중심의 서열 설정에 포함시킬지 고려하기 전에 담화 분절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화자와 청자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11)의 담화를 살펴보자. (11a)의 영형 대명사는 청자를 가리키며, 주어로 실현되었다. (11b)에서의 영형 대명사는 주어로 실현되었다. 이는 (11a)의 주어가 (11b)의 중심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대화상 생략될 수 있는 요소 즉, 화자와 청자, 발화 장소, 발화 시점 등에 대한 담화 지시체가 어떤 경우에 중심이 되며, 이 때 전향적 중심의 서열이 어떻게 될 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즉, 대화에서 생략될 수 있는 요소 중 가장 빈번히 생략되는 화자와 청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영형 대명사로 실현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11)과 (12) 각각의 형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1)은 대화(dialogue)이며, (12)는 독백(monologue)이다. 담화 형식의 차이에 따라 전향적 중심 서열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12]에서는 한국어의 영형 대명사가 모두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칭 대상에 관계없이 생략된 논항 명사구들을 모두 영형 대명사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심화의 원칙들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들까지 중심화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한다. 즉, 화자와 청자를 가리키는 영형 대명사가 국부적 담화 일관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들 영형 대명사는 중심화 이론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은

[12]에서 제시한 예문으로 대화 참여자를 지칭하는 논항이 생략된 발화이다. 즉, 그의 주장에 따라 중심화 이론의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화자와 청자 지칭 영형 대명사를 포함하는 예다⁹⁾.

- (13) a. ∅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Cb: [?], Cf: [나(청자)], TS: no Cb
- b. 예, ∅ 월계동 사는 이양순인데요.
Cb: [나(화자)], Cf: [나(화자)], TS: 지속

(13)에서 두 개의 발화는 전향적 중심의 집합에서 ‘나’와 ‘너’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두 지칭 표현은 모두 ‘이양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4]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영형 대명사로 실현되는 것이 무표적 형태라고 보았으며, 이는 (13)의 발화가 한국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13)의 두 발화는 ‘이양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즉, 두 발화의 중심은 ‘이양순’이다. 이는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영형 대명사가 중심화 이론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때문에 이들 영형 대명사는 담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영형 대명사가 특정한 화자의 의도 없이 외현적 대명사나 완전 명사구로 실현된다면, 오히려 그 발화는 어색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4)에서 다시 확인된다.

- (14) a. 동규 : ∅ ∅ 이게 무슨 것이예요?
Cb: [?], Cf: [동규, 영미], TS: no Cb
- b. 영미 : ∅ 생각 안 나세요?
Cb: 동규, Cf: [동규], TS: 지속
- c. ∅ 엇저녁 포장마차에서 저더러 그러셨잖아요.
Cb: [?], Cf: [동규, 영미, 포장마차], TS: no Cb
- d. ∅ 답답하다구,
Cb: 동규, Cf: [동규], TS: 지속
- e. ∅ 서울 떠나구 싶다구,
Cb: 동규, Cf: [동규, 서울], TS: 지속
- f. ∅ ∅ 어디든지 제발 데려가 달라구요.
Cb: 동규, Cf: [동규, 영미], TS: 지속

예문 (14)는 MBC 주말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의 5회 분 대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4)의 예문에는 담화 분절의 경계가 (14b)와 (14c)사이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14a, b)는 기술하는 시제가 현재인 반면, (14c~f)는 기술하는 시제가 어제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제가 다르면 담화 분절의 경계가 있다. (14)에서 등장하는 화자 또는 청자 즉, 대화 참여자는 ‘영미’와 ‘동규’이다. 이들 화자와 청자는 영형 대명사로 대부분 실현된

9) (13b)와 같은 한국어의 제시구문은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13b)의 주어인 ‘나’와 ‘이양순’을 가리키는 담화 지시체를 분리하지 않고, 전향적 중심 집합에서 하나의 원소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 또한, 이들 영형 대명사는 문법 관계 즉, 주어 또는 목적어로 중복으로 실현된다. 예를 들면, (14b)에서 영형 대명사 하나가 실현되었고, 이 영형 대명사는 청자이면서 동시에 주어인 '동규'를 가리킨다. 또한, '동규'가 (14b)에서 중심이므로 담화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주어나 목적어로 실현됨으로써 발화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담화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13)과 (14)의 담화처럼 화자와 청자인 담화 지시체가 동시에 문법 관계로도 실현되는 경우는 '대화 참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즉,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영형 대명사가 담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대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굳이 화자와 청자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문법 관계 계층을 통해 중심화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화자와 청자인 동시에 문법 관계로도 실현되므로, 이 때는 문법 관계 계층으로 전향적 중심의 서열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4. 결론

한국어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주어, 목적어, 주제, 공감도의 부분적 서열을 비교해 보았다. 부분적 서열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할 두 요인이 동시에 실현된 발화가 존재하고, 이를 뒤따르는 발화에서 어떤 요인이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선호되는지 설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설문 결과에서 주제가 주어보다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과 [8]에서 공감도가 주어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추이 상태의 선호 계층을 들고 있다. 그러나, 추이 상태의 선호 계층은 절대적인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설문 결과 공감도는 주어와 주제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본고에서 고려한 공감도 논항과 주어, 공감도 논항과 주제간의 부분적 서열은 공감도 논항이 간접 목적어로 실현되었을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다른 문법 관계 역할 즉, 간접 목적어 등으로 실현되었을 경우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설문 결과와 요인별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어의 전향적 중심 서열은 '주제 > 주어 > 목적어'이다.

화자와 청자가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서 주어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지 고려해 보았다. [11]에서는 화용론적인 개념인 화자와 청자를 도입하여 전향적 중심의 서열 설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예시한 담화에서 담화 분절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중심화 이론의 기본 가정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담화 분절체에 속하는 발화들은 개별적으로 전향적 중심의 서열을 설정해야 한다. 이에 한국어 담화 분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를 전향적 중심의 서열에 포함시키는 고려와 더불어 이들이 영형 대명사로 실현된 경우를 고려해 보았다. 화자와 청자가 실현된 영형 대명사는

영어의 대명사와 그 기능이 같지 않다고 주장한 [12]는 이들 영형 대명사를 중심화 이론의 적용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영형 대명사가 담화의 일관성에 기여하는 예로 인하여, 중심화 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

참고 문헌

- [1]. 권재일. 1992. 한국어 통사론. 서울: 민음사.
- [2]. 김미경. 1999. "정보구조화 관점에서 본 한국어 이동규칙." 언어 24.
- [3]. 김미영. 1994. 한국어 담화의 중심화.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 학위 논문.
- [4]. 김혜연. 1999. "한국어 대화상에서의 화자와 청자에 대한 지칭 표현." 담화와 인지 6.
- [5]. 남기심. 1985. "주어와 주제어," 국어 생활 3.
- [6]. 남기심. 2001. 현대 국어 통사론. 서울: 태학사.
- [7]. 노용균. 1997. "한국어 동사와 명사 사이의 하위 범주화에 있어서의 평행성," 언어와 정보 1.
- [8]. 류병률. 2001. 한국어 담화상의 중심화 (Centering)와 영형 조응 현상(Zero Anaphora).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 학위 논문.
- [9]. 장석진. 1986. "조응의 담화 기능: 재귀표현을 중심으로," 한글 194.
- [10]. 장석진. 1993. 정보기반 한국어 문법. 서울: 언어와 정보.
- [11]. 최재웅 · 이민행. 1998. "초점," 강범모 외 공저.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서울: 한신문화사.
- [12]. 홍민표. 2000. "센터링 이론과 대화체에서 논항 생략 현상," 인지과학회 논문지 11.
- [13]. Allen, James. 1995.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The Benjamin/Cummings Publishing Company.
- [14]. Brennan, Susan E., Marilyn W. Friedman, and Carl J. Pollard. 1987. "A Centering approach to Pronouns,"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55-62.
- [15]. Di Eugenio, Barbara. 1990. "Centering Theory and the Italian Pronominal System," *COLING 90,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270-275.
- [16]. Kameyama, Megumi. 1985. "Zero Anaphora: The Case of Japanese," Ph. D. Diss., Stanford University.
- [17]. Kuno, Susumu. 1987. *Functional Syntax*. Chicago University Press.
- [18]. Rambow, Owen. 1993. "Pragmatic Aspects of Scrambling and Topicalization in German,"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Centering Theory in Naturally-Occurring Discourse*. Institute for Research in Cognitive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19]. Turan, Ümit D. 1998. "Ranking Forward-Looking Centers in Turkish: Universal and Language-Specific Properties," In Marilyn A. Walker, Aravind K. Joshi, and Ellen F. Prince, eds.,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Oxford University Press.
- [20]. Walker, Marilyn A., Masayo Iida, and Sharon Cote. 1994. "Japanese Discourse and the Process of Centering," *Computational Linguistics* 20, 193-232.